

“광주 기업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 산업·기업의 미래 토론회

인재·스마트 팩토리 확산·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필요 대응 수준 14.3%...전국 평균 22.1%에 크게 밀돌아

광주지역 기업들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형철 남서울대 교수는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지역 산업·기업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기업 인식 현황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및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혁신 전략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가전·문화콘텐츠

등 지역 내 강점을 가진 산업과 첨단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대응 수준과 관련해 기업들의 실태를 전국과 광주지역으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수준은 14.3%로 전국(22.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부문 87%, 기업부문 84%에 달할 것이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생산성 및 매출액 향상

(42.6%) 경쟁력 강화(23.8%)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비해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지역 기업들의 경우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이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기업들은 35.9%가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수요충족의 불확실성(32.4%),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26.3%) 등도 어려운 여건으로 지적했다.

지역 기업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41.4%)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38.3%), 스마트팩토리 확산 및 추진 지원(33.2%)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

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기업들은 또 광주시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37.2%)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광주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적, 사회적, 환경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기여할 부분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으로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우 마이크로로보틱스센터장도 이날 발제에 나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며 "정부·지자체, 기업 양측의 지속적인 고강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8.69 (-10.93)	↓ 금리(국고채 3년) 1.96 (-0.02)
↓ 코스닥 682.37 (-9.18)	↓ 환율(USD) 1123.30 (-10.93)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 논의

보해양조서 23개 중소기업지원기관장 정책협의회 열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행)은 7일 보해양조서에서 지역 내 23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장들과 광주·전남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여 우수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기관간 협업 사항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협의회에서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신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기업 ㈜석경에이티의 시험생산과 마케팅 지원사례를 소개했고,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현재 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OLED 전문기업 ㈜집단랩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68년간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한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보해양조서에서 상생협력 방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다.

보해양조서는 '전년에, '잇세주', '매추순', '순회'를 출시하며 소주, 복분자주, 맥주,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지역 청년들의 창업자원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한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행 청장은 "협의회 구성원 모두 합심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나에게 가까운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

한전, 내달 7일까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오는 12월 7일까지 누구나 참여가능한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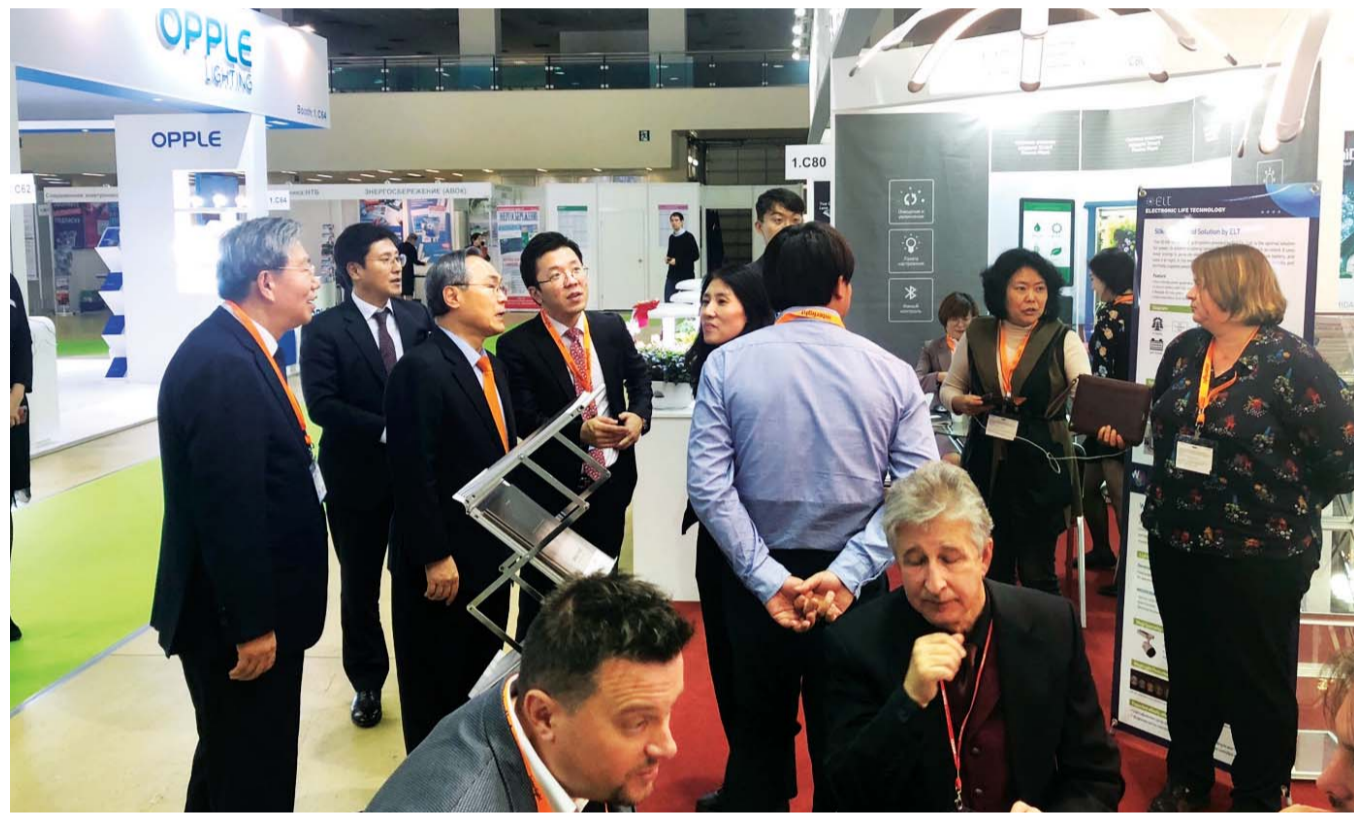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산업 트렌드를 감성적으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나에게 더 가까운 에너지'이며 전기의 효율적 사용,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세상, 디지털변환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및 미래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한전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들을 담은 3분 이내의 영상과 8컷 이상의 웹툰을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하면 된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영상과 웹툰 각 21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kepcocontest.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전 김중갑 사장은 "이번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한전과 에너지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에너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러시아에서 열고 있는 국제조명전시회에 공동관을 마련하고 국내 광융합업체들의 해외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광산업진흥회, 광산업체 해외 판로 지원 나섰다

모스크바 국제조명전시회 참석...12개사 기술 소개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역 광산업체들의 해외 판매망 확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 국제조명전시회'에 참석, 공동홍보관을 마련하고 국내 광융합 LED 조명기업 12개사의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면

서 러시아 시장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러시아 국제조명전시회는 18개국 446개사가 참가하고 66개국 3만여명의 LED 조명관련 유망 네트워크가 방문하는 러시아·CIS 지역의 최대 규모의 조명전시회다.

광산업진흥회는 특히 러시아 조명시장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LED 조명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으로 한국산 LED 조

명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 주목, OLED 조명, 전력선제어 솔루션, 식물 성장 LED 등 기존 조명제품에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제품을 선보이며 러시아 현지 바이어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조영진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 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틈새시장 발굴 등을 지원,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친구 같은 광주은행' UCC 공모

19일~내달 7일 접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은행 TV CF 슬로건인 '잘안다 잘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1분 내외의 동영상 제작을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kjbank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중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1등 '잘안다상' 1편에

300만원, 2등 '잘한다상' 1편에 200만원, 3등 '동행상' 3편에 각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홍보실 신중식 실장은 "이번 UCC 공모전을 통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창립 50주년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의 생각을 공감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매체로도 고객을 가까이 만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광주은행 공식 페이지에서는 매주 금융 관련 퀴즈 및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빛선 혹은 그린 시절로 시간여행 갈까요?

쿠한말 여 근대골목, 7080 추억 속으로
읍성마을, 달동네 '400년 오가는 시간여행'
500년 전 삶과 풍경 오롯이 '경주 양동마을'

문화 화제
시민문화공간으로 변신 '금호시민문화관'

문학기쁨
한지 감성, 선 조형으로 국제 미술계 주목받는 광주 출신 작가 김민정

노중운의 꿈의 여행
성 안팎에 펼쳐진 매혹의 풍경 알바니아

해외문화 현장
미술애호가들의 로망 루이지애나 미술관

음식 이야기
티 소블리에가 전하는 그윽한 홍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타이거즈의 가을' 쓸쓸하지만 빛나는 순간도 있었다

자연과 동심에 흠뻑 젖는 이야기
이리글, 곡성

과학책방 운영 과학저술가 이명현

"인간은 '생각하는 별 먼지'"

문항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모국어 사랑 혼으로 새긴 '혼불' 전주 최명희 문학관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책의 아우라가 빛나는 예술전문서점 암스테르담 '멘도'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

스타, 돈 얼마나 버나? 상상초월 고수입, 틱스타에편중된 부(富)

트렌드 따라잡기

대중 vs 열성팬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음식 이야기

자연과 동심에 흠뻑 젖는 이야기